

시공 아파트 감리단 교차점검

익산시, 공동주택 16개 단지 각각 다른 건설현장 교차로 공정성 확보... 안전 강화

익산시는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단지 16곳 감리단이 각각 다른 건설현장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안전진단을 추진한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순살아파트'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무량판 구조에 국한하지 말고 시공 중인 지역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중 무량판구조는 1곳으로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리단 공

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이중중으로 철저히 안전을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내 건설 중인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는 평화자구 LH아파트 1곳이며 지난달 30일 국토부 조사 결과 전단보 강근이 부족한 15개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 3일부터 무량판 구조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리단 교차 점검에 들어갔다. 타 건설사 전문 감리단이 다른 현장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안전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한 방침이다. 지역 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16개 감리단은 무작위로 각각 다른 건설현장에 투입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적정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공사현장 구조물 점검 등 집중적으로 점검을 통해 부실여부를 파악한다. 시는 특별 점검에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및 사용 중지 조치를 한 뒤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 관계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여름방학기간 가정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여름방학 아이돌봄 걱정 해소

익산시, 62개소 기관 상시 운영... 방학 중 돌봄사각지대 공백 해소

익산시가 여름방학기간 가정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방학동안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돌봄공백 해소 및 폭염 대비 돌봄지원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4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우리마을돌봄센터 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등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동돌봄기관 6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돌봄기관에서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초학습, 독서 및 숙제지도, 급·간식 제공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돌봄기관에서는 방학 중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돌봄 강화를 위해 △기관 이용홍보(sms, 플란카드, 자체 홈페이지 등) △인력보강(대학생 자원봉사자)을 통한 학습지원 △자세체량 운동으로 아동안전 도모에 나섰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여 센터별 운영시간을 탄력 조정(08시 ~ 20시)하고 방학중 급식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현장체험, 여름캠프 등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방학 중 가정 내 보호자 부재 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를 100% 파견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본인부담금도 70% ~ 100% 익산시에서 자체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속적인 돌봄기관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돌봄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수해복구 현장 메운 영웅들, 자원봉사 성료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체

익산시는 지난 4일 수해복구 현장에 메운 영웅들 덕분에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긴급 복구를 완료한 익산시는 피해 보상과 항구복구 계획에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일반시민, 군·경 기관·단체 등 연인원 1만6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가 큰 용안·용동·망성면의 농지, 주택, 도로 등을 긴급 복구했다. 대규모 복구가 마무리 되어 지난달

16일부터 가능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치고 4일 해산했다. 시는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통합봉사단을 꾸려 전국에서 달려온 연인원 2천2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재민 구호, 사랑의 밥차·급수 지원, 피해 가옥 정리, 이동세탁 등 복구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주, 경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출동한 밥차 자원봉사자들은 긴급 대피주민, 수해복구 투입병력을 위해 총 1만2천여개의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1만2천여 대규모 군부대 인력·경찰기동대를 비롯해 각 기관, 단체, 학교, 국회의원, 타 기관 공무원 등 2,000여명이 수해 현장에 달려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신속' 추진

익산시는 호우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익산세무서에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세도 납부유예 등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지방세 중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 자동차세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피장이 발행

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속·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호우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

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시는 익산세무서에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국세 분야 세금에 대해 납부유예 등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익산세무서도 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개편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군산 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마트, 중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 전체 가맹점 1만 2,486개소 중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

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달 중 제출 의견 등을 검토해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배달의 명수' 광복절 8.15 이벤트 진행

군산시는 4일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을 기념해 순국선열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광복절 8.15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SNS 댓글 이벤트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배달의 명수'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된 퀴즈를 확인 후 댓글로 정답을 작성하면 선착순 81명에게 5천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오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주문한 이용고객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주문 시 3천 원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광복절 기념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복절 8.15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앱 배너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고객센터(1899-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 팝업스토어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청년플(센터장 김연중)이 관내 창업자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롯데몰 내(內)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몰 군산점 후원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롯데몰 군산점 비단뜰과 홍보관 일대에서 개최되며, 창업자들이 만든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고객층과 군산시민에 선보일 좋은 기회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창업자는 콘텐츠 분야(5개 팀)는 오는 10일까지, 소비재 분야(10개 팀)는 18일까지 청년플 창업지원팀(☎471-1555)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플 홈페이지(gyouth.or.kr)를 참고하면 된다. 팝업스토어 행사 외에도 △굿즈 제작 지원 △전문가 1:1 창업 상담, △증강현실(AR) 체험 행사, △청년플 마스코트 인생네컷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